

# 서울의 지천(1)

박 문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I. 지천의 역사적 맥락

### 1. 서울의 지천

오늘날 서울의 지천이라 함은 서울의 중앙을 관통하는 한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말하는데 중랑천, 안양천 등의 8개의 1차 지류와 도봉천, 우이천 등 15개의 2차 지류, 성북천, 정릉천 등 11개의 3차 지류 등 모두 34개 지천이 서울 전역을 감싸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지천은 지역의 확장과 함께 근래에 서울의 영역 속에 포함된 것으로 과거 한성부나 경성부 때에는 그중 일부만이 도시지천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도시영역의 변화와 함께 지천의 공간적인 범위나 도시구조 속에서 갖는 의미는 시대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지천이라는 주어진 자연 수계가 도시공간 속에서 변화, 작용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보므로써 오늘날 지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한성부는 사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북서쪽 인왕산 연봉지대의 물이 남류(南流)하고 남쪽 목멱산(남산)의 물이 북류(北流)하여 개천을 이룬 뒤 동쪽으로 흘러서 오간수교를 통해 성외로 유출되는 수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의 지천은 바로 개천(오늘날 청계천으로 개천이란

이름은 태종 12년 川渠를 開鑿한 다음 붙인 것으로 문자 그대로 '開鑿한 川路'라는 뜻이다.)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은 복개되어 그 형적을 찾을 수 없지만 『都城圖』(1750년대) 등의 고지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東國輿地 備政攷』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개천은 10보~30보(12.5~37.5m) 폭이었고 그 지류들은 12.5m에 못미치는 소하천으로 고유명도 없었다. 1777년경 제작된 『漢京全圖』에는 청계천 상류의 수계만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주요한 역할을 하던 지천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다.

같은 시기의 『自都城至三江圖』(1750년 경)에는 도성에 이르는 두모포, 한강진, 서빙고, 동작진, 용산, 마포, 서강 등의 나룻터가 표기되어 있으며, 『都城圖』에서는 中梁浦와 한강이 도성을 위요하는 요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외 수계는 이름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京兆五部圖』(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에 보면 도성외를 흐르는 하천으로는 沙川, 倉川, 蔓草川, 石串川만이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며, 中梁浦, 麻浦, 豆毛浦, 漢江鎮, 洞雀鎮 등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조운의 물길은 浦(배가 들어다닌 포구)와 鎮(물을 건너는 나룻터)으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이조후기에 이르러서는 지리적인 인식범위가 확대되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수계와 주변의 폭원이 넓은 한강, 중앙포 등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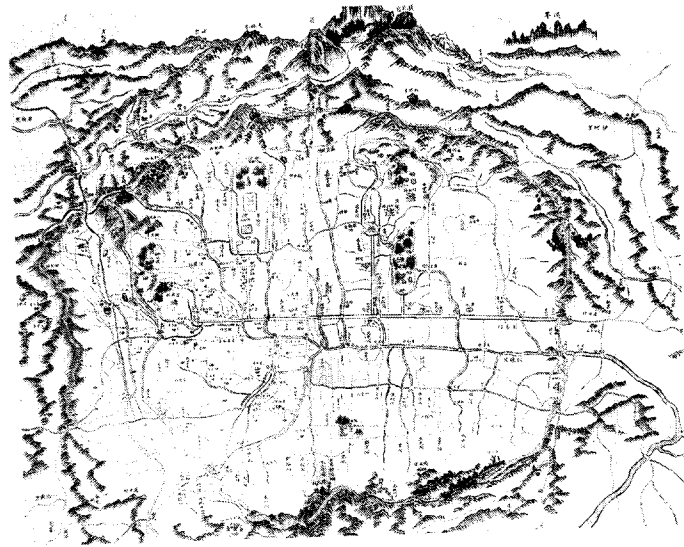


그림 1. 『都城圖』, 필사본, 17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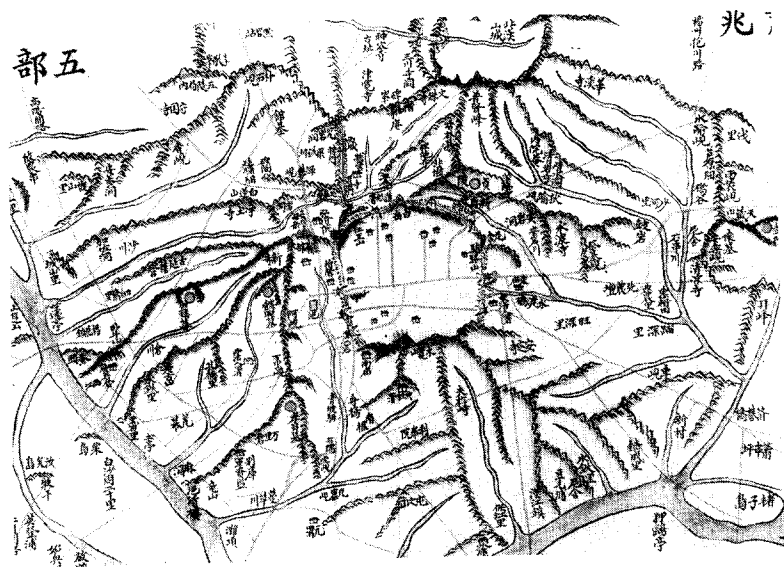


그림 2. 京兆五部(帖『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길로 접근이 가능한 수계들이 도시와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경성부의 시가지는 도성 내부와 마포와 용산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京城龍山市街圖』(1910년대, 오프셋인쇄)에는 沙川이 홍제원천, 蔓草川이 육천, 中梁浦가 중랑천으

로 각각 개칭되면서 도시공간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1936년에 시역이 크게 확장되면서 뽕나무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안양천 변과 농경지였던 뚝섬, 중랑천까지 도시영역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특히 중랑천과 뚝섬은 환상제방의 축조와 함께 그나마 유지되던 浦, 河



사진 3. 수선전도

港의 기능은 급속히 쇠퇴하면서 근교농업지를 위한 배후지 구실만 하였고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장지대가 형성되자 하천으로서의 원래적인 기능은 쇠퇴하였다.

서울특별시로 되면서 도시공간이 확대되자 도시개발과 함께 강남 및 강북 외곽지역의 지천 주변의 충적지가 시가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강북의 홍제천과 중랑천을 중심으로 하는 소분지 일대가 시가지로 발달하였으며 강남에서는 안양천 일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천호동, 고덕동, 잠실까지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양재천, 탄천변을 중심으로하는 시가지의 발달이 두드러져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지천의 윤곽이 형성되었다.

## 2. 도시공간 구조와 지천

도시공간에서 물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고유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이용되어 왔다. 영조때 간행된 『四山禁標圖』를 보면 한성부의 경계는 중앙포, 전통교에서 두모포-용산 등 한강변, 사천(홍제천), 북한산 등 자연지물(physical feature)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지천이 한성부라는 도시영역을 경계지워 주는 주요한 경계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가지 내부에 있어서는 개천의 지천의 분포는 도로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지천을 따라 나무가지 형태의 도로가 파생되었으며 지천을 따라 한켠의 가로가 나있고 각 도로들은 교량에서 모여서 건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천에 걸쳐있는 다리는 도성내의 모든 보행 통행의 결절점(node)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도시민들의 활동은 도보로 이루어



사진 4. 빨래하는 아낙네와 물장난하는 아이가 어울어진 수표교 주변 개천의 모습

지던 시대이므로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간을 원활하게 소통시켰는데 도성안뿐만 아니라 도성과 연결되는 성저십리의 지천에도 다리가 축조되었다. 『首善全圖』 등에 나타난 다리는 성내에 76개, 성외에 10개로 총 86개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성내 개천의 본류에는 長通橋, 太平橋, 長慶橋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다리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지천의 규모가 작아서 징검다리로도 통행이 가능한 곳, 사람과 우마의 통행이 적은 곳에는 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성외에는 개천이 수문을 거쳐 성밖으로 흘러나와 중랑천에 합류하기 전에 永渡橋가 있고 중랑천 상류에는 松溪橋라는 다리가, 하류에는 유명한 전통교가 있었다. 한편 母岳川水가 용산강에 합류하기 전까지의 蔓草川 상에는 革橋, 京營橋, 新橋, 杞橋, 舟橋 등의 다리가 있었다. 이들은 비록 성외 지역이었지만 지역간의 교통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3. 도시생활 속의 지천

지천은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비밀상적인 놀이에 이르기까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상적인 도시생활에 있어서는 식용나 세탁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한성의 경우는 각 집에서 우물을 파서 생활용수

로 하였으며 집밖에 있는 공동용 우물도 많아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채소나 고기를 씻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물은 3~4개월 간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 고갈되어 4, 5월이면 식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성내 주민들은 생활용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먼거리에 있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을 길어와서 사용하였다. 또한 개천변에서는 아낙네들이 실버들 늘어진 개울가에 주저앉아 빨래를 하곤 하였으며 아이들은 개천속에 들어가 물장난을 하곤 하였다.

개천변에서는 여러가지 놀이가 벌어졌는데 개천의 물이 빠지면 바닥은 장안 사람들의 뜰이 되어 돌팔매싸움(石戰), 편싸움(便戰)이 벌어졌으며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팽이치기, 달밤에는 태견놀이, 연날리기, 그리고 다리밟기(답교) 등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다리밟기란 서울의 독특한 풍속이었는데 정월 대보름 밤에 다리를 밟고 달구경을 하면 다리병을 없게 한다고 하여 도성내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청계천 일대에서 도시 카니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18세기의 문인 천수경은

“대보름은 아름다운 명절이라서/술에 취하여 서로를 부르네 봄놀이가 오늘밤부터 시작되니/노니는 발끝 티끌이 큰길을 맑게 하고 무리들의 악기 소리가 광통교에 들끓는데/통금도 없는 밤

에 담겼 이야기하니 기쁜 마음이 갑절이나 더해라"하고 읊어서 당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 조선조 한양 鄭都 후 60~70년이 지나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도읍이 안정되고 도성시민들의 생활도 여유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철의 행락을 즐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杜鵑花가 피는 춘 3월이면 혹은 성내외 산간에서 花煎놀이를 즐기고 혹은 芳草 무성한 野原을 찾아서 踏青놀이를 즐겼다. 세조실록 7권에 보면 세조 3년 4월에 남자 뿐만 아니라 귀부인들도 서로 호화사치를 경쟁해가며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넓은 들판위에 장막을 치고 술과 노래 춤으로 해가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고 한다.

도성외에서 이러한 위락지로 알려진 곳은 세검정, 우이동, 전관평, 정릉 등이 있다. 세검정 일대는 도성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계곡과 물이 어울어진 산수풍경이 수려하여 성외에서 제 1로 꼽을 만큼 아름다워서 도성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던 장소였다. 서울의 놀이터를 말할때 "탕춘대 水石"을 드는 것도 이 때문인데 여름의 장마철이 되면 많은 물이 모여 부근 계곡에 넘쳐 흘러 一大壯觀을 이루기 때문에 도성안 사람들이 많이 나가 넘쳐흐르는 물결을 구경하였는데 이를 "觀漲"이라 하여 연중행사로 삼았다.

도성 바로 멀지않은 거리에 있는 성북동 일대는 "北屯桃花"라 하여 봄철의 복사꽃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수석이 맑아서 여름의 피서지, 가을의 단풍구경에도 적지였다. 특히 東國歲時記에 의하면 上元前(6월, 9월)에 세번 숙정문에 나가 놀면 그 해에 재액을 면한다는 말이 전해져 와서 도성 여인들이 이곳을 찾아 놀던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랑천 남쪽의 너비 3,40리에 달하는 들판을 동교 또는 箭串坪이라고 하였는데 "箭郊尋芳"이라 하여 "漢都十詠"중의 하나로도 유명하였다.

세조 성종조의 문인 逸齊 成任이 지은 "箭郊尋芳"을 보면

"동교의 푸른 풀 넓은 자리를 펼친듯/사람들 방초를 찾아 성 밖으로 나가네 풍광은 얼핏 지나는 것 무어라 虛澹하오리/일년 중의 행락은 봄철이 제일이라네 술자리 마련하고 계곡 따라 앉으니/백병 술을 한번씩 마신다 사양을 하리오 마음껏 놀다가 달 밝으면 돌아갈 곳/석양이아지고 말고 무어라 관계하리오" 하여 당시의 전관평 놀이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청량리 일대는 石串川의 맑은 물이 양안 楊柳늘어진 아래로 흘러내리는 가경이었는데 도성에서 거리가 조금 멀었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종조(1470 94) 문인 成侃은 "용계총화"에서 도성 내외에서 놀러 갈만한 곳으로 청량, 속개 등이 있지만 도성에서 가깝지 않아서 노는 사람들이 가지않는다고 하여 이 시대의 놀이공간에는 거리가 주용한 요인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릉은 북한산의 연봉이 남쪽으로 뻗어내린 사이로 계곡이 심오하고 수석이 청정하여 경승지를 이루고 있으나 정도 초기에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인적이 드물었다. 정릉이 도성 사람들의 위락지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신덕왕후의 정릉이 정작 왕가 능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다음부터 명승지로서 이름을 빛내게 되었다. 우이동은 동소문 밖에서 약 20리로 도성 중심지에서 약간 먼거리였지만 자동차, 기차편이있고 옛날부터 명승지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석을 즐기고 봄과 가을에는 꽃과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다. 특히 우이동의 벚꽃은 유명해 봄의 벚꽃구경으로 인파가 몰려서 동아일보에(1920년 4월 17일자) "陽春의樂園 우이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 4. 지천의 복개

자연수위가 하수도 역할을 할때는 개수로 혹은 개거라고 하는데 한성부의 지천은 개수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도시내의 인구증가에 따라 수로에 오물이 퇴적하고 악취가 심하여 도시환경의 오염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경성부에서는 한일합방 당시 토사가 매립되어 있고 분뇨가 정체되어 있는 불결한 상태의 청계천과 육천을 간선하수도로 취급하여 청계천은 점차 암거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35년까지 청계천의 지천들을 대부분 암거화 하였으며 지천의 규모가 커서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천만이 개수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이렇듯 청계천에 대한 복개사업이 진행되자 천 내에 있던 각종 귀중한 사적 뿐만아니라 청계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추억이 수장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대에 들어오면서도 지천을 하수도로 취급하던 일제시대의 관행이 지속되었는데 『서울하수도백서』(1966)에 의하면 청계천 및 육천(1962년)의 복개사업은 꽤(?)로 기록되어 있고 그 효과로서 증가하는 교통량의 완화, 수도의 위생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계천의 복개가 60년대 초에 끝나자 각 지천에 대한 준설, 복개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육천, 이태원천, 대학천, 송인천 등이 복개되어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서울시 지천의 복개에는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추진되어 버렸다. 이러한 지천의 복개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당초에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근대화 과정의 일부라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할 정도로 자연에 대한 생각이 마비되었던 것 같다. 시민들은 하천은 더러운 곳, 악취가 풍기는 곳, 쓰레기가 쌓이는 곳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추악한 꼴볼견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지천의 복개, 도로화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발상은 의외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도시에 있는 웬만한 작은 지천들은 모두

뚜껑을 덮어 그 위를 도로화하여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5. 지천의 개수

한성부의 자연수류는 굴곡은 있었겠지만 대체로는 오늘날의 청계천 흐름과 같은 줄기의 흐름이었으며 제방같은 것은 거의 없는 황량한 자연하천 그대로 청계천에 흘러들어간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천은 생활쓰레기 등이 유입되는 등 거의 방치 상태였던 것 같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또 수채물이 통하지 못해서 변소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차고 비가 조금만 와도 부엌에 물이 고이고 냇가 집에서는 모두 개울물이 넘칠까 염려 하여 여름에는 비만 원망하니 어찌된 일인가?” 하며 이것이 모두 도랑을 제대로 파지않고 제방을 쌓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홍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종 원년(1399)부터 고종 25년(1888)까지 약 500년간 전국적으로 101회의 한해를 겪고 있으므로 평균 3년 주기로 홍수를 겪은 셈이었다. 홍수가 나게되면 주변의 산에서 유하되는 토사가 퇴적하여 자주 유수가 범람할 뿐만 아니라 교량이 유실되고 수재로 익사자가 생기는 등 도시 재해가 자주 야기되자 위정자들은 방수의 목적으로 개천과 준천 공사를 진행하였다. 1차 개천공사는 태종 6년과 7년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한성을 관통하는 배수시설인 대간선을 새로 개척하다시피 하는 공사였다. 그 내용은 개천도감을 설치하여 종래의 자연하천을 두고 어떤 구간은 종래 그대로 어떤 구간은 하상을 파내고 하폭을 넓히는 한편 제방을 쌓아 상류부분의 제방을 석축으로 지금의 3, 4가부터 수구문까지는 제방을 나무로 쌓았으며 또 대소광통교, 혜정교 등 중요한 다리는 과거의 목교 또는 토교를 석교로 바꾸는 것이었다. 2차 개천공사는 태종 12년(1412)에 실시되었는데 간선 배수시설인 개천에 대한 준설 이후에 지천과 세천은 자연 그

〈표〉 지천 관련 계획 내용

년대	계획 내용
40년대	청계천 기타의 지천을 개수하고 하수의 설비 완성('45)
50년대	청계천 준설공사 착공('57), 청계천 복개공사 착공(제1차,제2차)('58) 명륜동 개천 복개공사 반대 진정
60년대	육천,이태원천 준설공사 착수('60), 4개 하천(성북천, 대학천, 복자천, 송인천) 준설공사
70년대	중랑천 호안 개수공사 착공 청계천 복개 등 8개 하천 정비계획 수립 한강·안양천·중랑천·육천 등의 하천대장 작성 대학천 성북천 복개 등 4건의 하반기 신규사업계획 확정 안양천 정비기본계획 마련(하폭확장, 직강화, 유로이전) 화양천, 마장천, 육천, 성수천, 화계천, 전농천, 청계천, 대학천, 봉원천 복개공사 완공('77) 우이천 양쪽제방(1,200m)에 개나리꽃길 조성 불광천 유희도로에 도로공원 조성공사 중랑천 제방축조공사 착공('78), 한남천 복개공사 착공('79)
80년대	양재천 제방축조공사('80), 안양천변 꽃단지 조성계획 수립, 중랑천 제방도로 조깅코스 단장 개설(주민부담) 안양천 정비사업계획 마련(저수로정리, 호안블럭, 고수부지 정비, 체육공원화 등) 홍제천 정비공사('81), 홍제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착공('82) 녹번천 미복개부간 복개계획 수립 중랑천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82), 중랑천을 하천공원으로 개발계획 마련(산책로 수립대 꽃길 조성 등)('83) 청계천복개지 주차장 개장('84) 안양천 개발을 위한 세부계획 확정('85) 홍제천복개지 주차장(2급지 노외주차장) 운영 실시 한강 24개 지천의 오물준설작업 안양천 탄천 중랑천의 오염 분석하는 수질보전협회 운영계획('86), 냄새방지 현장점검 실시('88) 사당천('86), 도림천 복개공사 착수('88)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시사』, I, II, III, IV, V, VI, VII(1982, 84, 87, 88, 91, 92)의 내용 중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작성

대로여서 지류 세천의 개착과 1차공사에서 다루지 않은 개천상의 주요 교량을 석교로 조성하였다.

『京城府史』에 보면 경성부 초기의 청계천, 육천은 토사로 매몰되어 있었고 분뇨가 방류되어 매우 불결하고 위생상태가 나빴다고 지적되고

있고 도시의 위생적인 측면에서 1917년부터 지천의 개수, 하수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1차 하수사업으로는 개거식에 의한 청계천의 준설과 배수불량한 17개 지천을 개수하였으며 2차(1924~1931년)로는 청계천 및 육천 및 지천 9개 노선을 개수하였다. 또한 경성부에서는 한

강, 안양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을 실시 하였는데 일본인 기술자들의 개수방식은 하천 바닥에 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하상을 유지하면서 하천바닥에 낮은 독을 쌓아서 하천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水制와 堤防만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개수공사는 제방축조, 석재 또는 콘크리트 호안 축조, 내수 배제를 위한 배수문 설치, 수제축조 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치수과에 보관중인 하천대장과 공사대장에 의하면 한강(1927~1938년), 안양천(1929~39년), 중랑천(1934~1939년), 청계천(1937~1941년)에 대한 제방축조사업이 다년간 중점적으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주요 하천의 호안이 개수된 것은 이 시기의 호안 공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수기인

1955년 이후에는 한강을 비롯하여 옥천, 중랑천, 청계천, 정릉천, 도립천, 홍제천, 월곡천, 대방천, 성북천, 불광천 등 10개 하천을 개수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제방축조, 호안공사, 웅벽공, 석축조성 공사 등이 수행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랑천 등 지천변에는 제방축조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아울러 제방변에 도로건설사업, 주차장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환경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천변 환경정화 운동이 벌어졌고 80년대 후반에는 지천변을 하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준설, 제방건조, 도로건설, 주차장 확보 등에서 이제는 환경정화, 시민들의 물의 이용 및 고수부지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